

패기의 신인이나 관록의 예산지킴이나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2) 광주 동남갑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민생당 장병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한기선(55), 기독교자유동맹 이안숙(61) 후보도 출사표를 냈다. 동남갑에서는 빛그린 산단·송암산단 개발과 백운광장 일대 개선타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재선 구청장과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최영호 예비후보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보폭을 넓히고 있고, 장 후보도 기존 조직을 재 정비하면서 4선 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윤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신선함과 패기가 강점이다. 조선대 운동권 출신인 윤 후보는 최근 옛 동료들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강화했고, 동문을 추가로 영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최근 윤 후보는 민주화를 위해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열사들을 참배하고 "그분들이 바랐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제가 살아남은 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31일엔 조선대 민주공원을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후배 등과 함께 조선대민주화운동기념탑과 선배 열사들의 추모비를 둘러보는 등 '동문의 힘'의 모았다. 이날 윤 후보는 "저는 대학에 들어와 학생운동을 했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1980년 5월에 많은 분이 더 나은 세상을 원했던 이유로 생을 달리하셨고 1987년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이 희생도 당하고 본인의 뜻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불살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광주·전남 미래혁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삼각벨트 구축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유치 ▲송암산단,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의 5대 핵심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당	민주당	민생당	혁명당	기독교자유당
이름	윤영덕(50)	장병완(67)	한기선(55)	이안숙(61)
학력	중국 북경대 대학원졸업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광주대 경영학과 중퇴	미기재
경력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현)제20대 국회의원 (전)기획예산처 장관	(현)청문록수 4년	(현)세계비전교회 담임목회 7년
주요 공약	·에너지 삼각벨트 구축 ·송암산단,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육성	·에너지밸리산단을 조기활성화 ·백운광장 주변 교통난 해소 ·진월IC 조기개통	·8세 이상 국민배당금 매달 150만원 평생 지급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북한이탈주민법' ·통일 후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 지도자를 양성

민주당 윤영덕, 靑 행정관 출신 정치 신인
민생당 장병완, 의정활동 풍부한 '예산통'
혁명당 한기선·기독교자유당 이안숙도 출사표
빛그린산단·백운광장 개선타입 이슈

평균보다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는 지난 10년(2010-2019년)간 남구는 2.0% 증가세를 보여 광주 시 전체 인구 증가율 1.6%보다 높았다.

장 후보는 "10년 전 남구 지역경제는 산업시설이 빈약하고 주거시설 위주인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산업기반확충을 위해 에너지밸리산단을 만들고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며 "43만평 규모의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전기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원 설립, LS산전 연구소 등을 유치했고, 첨단실감콘텐츠큐브 완성을 통해 남구가 첨단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통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대형국책사업으로 남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30년간 나라살림을 행한 국정경험과 10년간 의정활동으로 여야 구분 없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지역을 발전시킨, 검증되고 일 잘하는 인물 장병완에게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은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유치 ▲문화콘텐츠 ICT, 융복합 문화산업단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운광장 중심의 도심재생 ▲도시 캠퍼스를 통해 평생 교육 육성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판세 분석

윤영덕 '민주당 원팀', 장병완 조직력이 판세 변수

4·15 총선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서는 패기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와 관록의 민생당 장병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선대 운동권 출신의 윤 후보가 남구의 분산된 민주당 조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가 가장 큰 관건이며,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장 후보의 조직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여부도 총선 판세의 변수다. 또 민주당 경선 과정에 불거진 잦은 고소·고발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남구 표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남구 대촌동의 민심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농복합형 지역인 대촌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분가

등을 통해 인근 남구 지역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대촌의 민심이 남구 전체의 표심을 대변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 선거구 출마 후보군들도 최근 대촌동을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고, 장 후보와 윤 후보도 팽팽한 '대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촌동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탄탄한 각 조합과 조합원들의 선택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봉선동 등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전문기층 유권자의 선택도 전체 민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전문가층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발 동남풍의 강약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 후보로서는 조직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각자 조직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민주당 원팀' 성사 여부가 본선 당락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민주당 경선 주자와 윤 후보 간 고소·고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윤 후보 측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 후보도 여러 차례 소속 정당이 변경되면서 흩어졌던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만원 감면 혜택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재산세를 줄이는 구세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30만원) 내렸다면 임대료 인하

부분의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제정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는 만큼 국제와 지방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동구 608-2982, 서구 360-7927, 남구 607-3121, 북구 410-8141, 광산구 960-812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이용선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극복 2차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 대책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해 구세 감면 표준안을 5개 자치구에 송부하고 구의회 의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준다

만 7세 미만 아동 40만원씩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317억 원을 반영했으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7만9000여 명이며,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방식은 수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

처('돌봄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4월 6일부터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미보유 가구는 4월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주소지로 우편 배송할 계획이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아동1인당 40만원이 입금돼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 관리

초미세먼지 33% 감축 목표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4월 3일부터 시행될 대기 관리 권역 특별법에 따라 시 전역은 남부권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다.

산업체, 자동차,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

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는 크게 사업장,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시행된다.

광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대기 관리 권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 16㎍/㎥까지 배출 농도 3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